

A Daily Bread

날짜: 5786년, 9월 13일 (2025년 12월 3일)

토라 봇: 보내다

주제: 에서와 이스마엘의 결맹

현인들은 창세기 32장 6절 이하에 언급된 야아콥의 모든 소유 목록들을 그의 후손들에 대한 훈계들로 수사학적 암시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소'는 전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전쟁에 앞서 백성에게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신 20:2-4). 성경에 이르기를: "그의 소 같음은 위엄이 있다" (신 33:17). 이 구절은 모세가 죽기 전 요셉 지파에게 내린 축복 가운데 등장한다. 종말의 날에, 요셉의 후손 중 하나가 이 "전쟁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는 요셉이 "에서의 근본적인 적대자/적수"이기 때문이다. 바미드바르 라바(14:1)에 따르면, 이 전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요셉의 아주 특정한 후손을 지칭한다고 이해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네궤수를 모을 마쉬아흐 벤 요셉 (Mashiach ben Yosef)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셉의 아들, 벤 요셉이 "소"로 해석하는 가르침입니다. 한편, 남유다 현인들이 언급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Malekh HaMashiach/ The King Messiah)"는 당연히 야후다(유다) 지파 출신의 마쉬아흐 벤 다윗 (Moshiach ben David)이다라고 가르치며, 그를 나귀에 비유합니다.

나귀는 왕 마쉬아흐 (메시아)를 가리키며, 그의 도래에 관하여 예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찌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슥 9:9). 야아콥은 이와 같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후다 (유다) 즉,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선조들이 이제 태어났으므로, "나 야아콥이 더 이상 에서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림자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에브라임(북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한 이름)과, 앞으로 다가 올 마쉬아흐 왕국 시대를 뜻하는 야후다로 인함입니다라고 그의 혈육인 에서에게 넘지시 전달한 것입니다.

"양"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타낙: 모세오경-선지서-성문서)의 기록으로 가운데 정검합니다: "너희는 나의 양, 내 초장의 양이라" (겔 34:31). 이 구절은 마쉬아흐 천년 왕국 시대를 예언하는 이 결론에서 언급되며, 그 때 여호와 엘로힘께서 마쉬아흐를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 곧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유일한 목자로 세우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미드라쉬 탄후마의 평행 본문에서는 "양"이라는 단어가 야아콥의 자녀들—이스라엘의 "12" 지파들—의 탄생을 통해 사방 온 땅에 쌓인 미덕의 공로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야아콥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뒤에, 그들의 후손은 열방 민족들과는 달리 구분되어 여호와 엘로함께 극소수들이 극도로 순종했기에 "양"이라 불린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이란 표현은 여호와 창조주 권능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시편 123편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은 여호와, 우리 엘로힘 (권능자) 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와 창조주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열정적인 헌신의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엘로함께서 에서의 악한 성향의 혈기들을 갖은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아메인 뷔아메인으로 신뢰합니다. 이어지는 3 절에서는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멸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야아콥의 발언과 그가 라반의 집으로 떠나던 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사건(창세기 28:9)을 시편의 윗 구절과 연결시킵니다: 에서는 자기가 마할랏과 결혼한 이유가 아버지 이즈학이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것이라 기록한다 (28:6-8). 그러나 실제로는 에서의 결혼의 동기가 훨씬 사악하였다.

토라의 Sod level (비밀)의 가르침은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는 두 축의 악의 세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 축은 '소', 다른 하나는 '나귀'로 상징 된다고 기록합니다. 탈무드 (*הה דרבן עבודה צורה*: 이교도 우상 숭배 5b)에서는 이사야 32 장 20 절의 “소와 나귀의 발을 보내는 자들이여”라는 구절을, 이스라엘이 악의 성향을 극복하여 이기고 구원을 받는다는 회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악의 성향을 “소”와 “나귀”로 구성된 두 영적 세력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들 악의 세력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두 인물-에서와 이스마엘—의 생각과 행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 두 인물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악의 물리적 전형을 대표하는 것이다.

에서는 “소”로 상징되는 힘을 구현하고(이사야 34:7; 다니엘 7:7 참조), 이스마엘은 “나귀”의 힘을 구현한다. (창세기 16:12; 에스겔 23:20 참조). 에서는 이스마엘 씨와의 결혼을 통해 이러한 불결한 영적 세력과 결합하고, 이를 통해 야아콥을 압도하고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서는 실패하였다. 에서의 결혼은 육신적으로는 성립되었지만, 여호와 엘로함께서 에서의 결혼 이전에 이스마엘을 거두셨기 때문에(메길라 17a), 에서와 이스마엘 집안과의 결합으로 내재된 영적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고, 야아콥은 구원을 받았다. 에서가 이스마엘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려던 시도가 훗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에서의 후손들의 거주처 에돔, 그 권력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이 오랜 유배 생활을 하던 동안, 에돔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자 여러 차례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매번 엘로함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야아콥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에서의 진짜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에서와 이스마엘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들과의 장기적이고 치열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야아콥은 마치 전쟁에서 전사처럼, 그는 대적의 도전을 되받아치듯 에서에게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던 것이다. 그는 이 불경하고 세속적인 연합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투마 (*תומא* 불결)의 세력에 대항하여, 케두샤 (*קדשו* 거룩)의 힘을 모았다. 거룩의 힘이란 곧, 요셉과 야후다 지파에서 나온 두 세력의 하마쉬아흐의 권능을 뜻한다. 이 두 마쉬아흐의 연합된 신성한 사역은 에서와 이스마엘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랍비인 람밤(רמב"ם)은 이사야 21 장 7 절에 근거하여, 에돔과 이스마엘의 동맹을 맺는 때가 오면 그것이 마쉬아흐의 도래의 임박한 징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찰력은 에서의 의도를 밝힌 위의 설명과 연결하여 볼 때, [나사렛의 도, 여호와의 도이신 여호슈아를 믿지 않는] 유대교의 마쉬아흐 관점의 (+/- 양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야콥은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큰 위험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다. 에서와 이스마엘은 마침내 결맹하여 오랫동안 염원해 온 목적—이스라엘 민족의 전멸—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야야콥은 그 사악한 동맹과 불의한 형제애에 대한 멸시를 분명히 밝혔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소”와 “나귀”에 맞서,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편의 “소”와 “나귀”를 내세운다!” 전자 “소”는 에서를 이길 전쟁의 기름 부음 받은 하마쉬아흐 벤 요셉(요셉의 아들로 온 메시아)이며, 후자 “나귀”는 이스마엘을 정복할 왕 마쉬아흐(The King Messiah)이다. 이 두 마쉬아흐는 온 12 지파 이스라엘의 네궤술(영혼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구원으로 이끌 것이며, 그 여정은 거세게 저항받았으나 결국은 승리로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분별되는 바가, 남 유다의 대표적 토라 스칼라로 인정받으신 한분 람밤(Rambam)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벤 요셉과 벤 다윗의 이스라엘의 하마쉬아흐가 이미 2 천년 전에 오셨던 나사렛의 도 여호슈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샬롬